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벽허선사 '赤日'

선사의 법명은 원조(圓照), 법자는 한영(漢影), 법호는 벽허(碧虛), 속성은 한시(韓氏)다. 평양에서 아버지 응백(應白)과 어머니 최씨(崔氏)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선사의 어머니께서 금까마귀 한 쌍이 날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효종 9년(1958) 10월 10일 선사를 낳았다.

선사는 10세에 평양 태원산 석수암에 주석하고 계신 각형 장로에게 촉발하였다.

선사는 삼장(三藏)의 법을 구하며 이교(二教)도 익혔다. 선사의 수학이 깊고 깊어 가르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은로(恩老)께서 "월나라 작은 닭은 큰 흰 새의 일을 부화시킬 수 없다. 너에게 던져 줄 능력이 없지만 너는 구름도 헤쳐 나갈 운이 있으니 하루빨리 의남(宜南)의 큰 장로(老老)에게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다.

선사는 은로(恩老)에게 하직 인사

지는 햇빛은 붉은 누각에 비치고, 굵어진 구름은 옥봉(玉峯)을 의지했네.

천고(千古)의 탑에서 방울소리 흔들리고, 백년 뒤 소나무에 바람소리 웅웅거리네.

선사의 깨달음은 바로 붉은 햇빛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주는 햇빛이 있어야 영위하는 것이다. 그 햇빛도 생명이 있는 붉은 햇빛이다. 이것이 선사의 깨침이자 가르침이었다.

스승 설암께서 선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호남 징광사(證光寺)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선사께서 선불장(選佛場)을 여시게 되었다. 선사께서 참학(參學)하신다는 현옹지영(顯翁之鈴) : 사상을 하는 때의 꼬리부분에 달린 방울, 매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러 그 때의 소재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선사께서 은거하여 살아도 소재를 알아 찾아온다는 뜻이 전국 곳곳으로 울렸다. 이에 사랑에서 찾아오는 중생들과 수좌 대중들

법성원옹이란 무슨 뜻이고?

"붉은 햇빛입니다" 확철대오

를 울리고 출가하여 지금까지 공부하던 석수암을 떠나 의남 월저 선사(月渚禪師)를 찾아 법을 구했다. 월저 문하에서 수침 몇 해만에 월저 선사께서 또 이르시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응의 새끼를 기를 수 없으니 너의 비늘이 돌아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곳은 바로 남명 설암 선사(南冥雪巖禪師)가 주석하고 계신 묘향산 내원운사이다. 설암 선사 회상에서 수침 4년째 정월 초하루 날이었다. 스승 설암 선사께서는 락국을 드시다가 선사에게 "법성원옹(法性圓翁)이란 무슨 뜻이고?"라고 물었다. 이에 선사는 "적일(赤日: 붉은 햇빛입니다)"하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적일(赤日: 붉은 햇빛)

斜日穿來關(사일천주관) 斷雲倚玉峯(단운기옥봉) 鈴搖千古塔(영요천고탑) 鐘發百年松(종발백년송)

■경주 해회선원 회주

이 바닷물이 밀려오듯 구름이 몰려오듯 찾아와서 "원하옵니다. 선영(禪悅)을 베푸시어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이에 선사께서 크게 가르침을 허락하시어 천엽잡화(千葉雜化)의 도량을 여니 보광명전(普光明殿)처럼 방불하였다. 선사의 덕은 사생(四生: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을 도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비는 삼라만상을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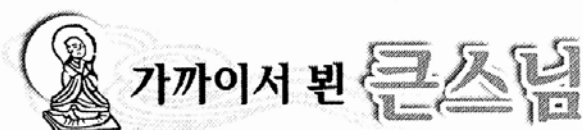
또한 선사의 가르침에는 사생(四生)과 만유(萬有)가 하나 되어 삼여(三餘: 겨울은 년(年)의 나머지, 밤은 날(日)의 나머지, 흐리고 비가 오는 것은 시(時)의 나머지이다. 학문은 남는 시간에 하여도 충분하다는 옛 위략독서(魏略讀書)의 마땅히 세 가지 남음으로써 해야 한다(當以三餘는 뜻"가 없었다.

선사는 영조11년(1753) 묘향산 동산사(東山寺)에서 세수 78세, 법랍 67세로 입적하였다.



◇석주스님은 9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사신다. 그러나 그런 바쁜 일상사들을 통해 초월자의 자유를 얻고 있다.

“나고 죽음”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



석주스님 (철보사 조실)

구랍 29일 아침부터 짙은 날리면 눈발이 제법 세차질 때 좀 아산 보문사에 도착했다. 큰 스님과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역경(譯經)과 어린이포교 원력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93세의 석주(石周) 큰 스님을 가까이서 뵈게 되면 무엇을 먼저 여쭙 불까하는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 보문사에 도착했다. 그러나 석주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것.

연초부터 서울 철보사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했고 번번이 스님이 출타중이시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결국 8일에서야 한 시간을 약속받아 철보사 스님의 거처에서 3배를 올릴 수 있었다.

"한 번만 해... 나는 발목이 아파서 절을 못해..."

팔을 저으며 절은 한 번만 하라는 노스님의 뜻을 거역하고 3배를 올렸다.

"아흔 셋의 연세 때 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아흔 넷 연세에 뵈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상당히 바쁘셨나 봅니다."

"그저 그렇지,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더

러 있어서 갔어요. 올해부터 다니는 일도 좀 줄일 생각이야.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이제 책보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자연스럽지 못해. 난 이제 다 된 늙은이야... 하지만 글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써, 글씨 쓰는 일은 해야지. 힘닿는 순간까지는."

재산 부정 너무 많아

그러나 아니었다. 스님이야말로 바깥줄 입과 사람 만나는 일, 독서, 법문 등의 일상들을 초월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거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부와의 인연들을 단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곧 가는 고고 불 것은 보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선연했던 것이다. 글씨는 힘닿는 순간까지 쓰겠다는 의지가 끝 스님이 않은 선(禪)의 자리일 것이므로.

석주 스님은 15세에 서울 선학원으로 출가했다. 스승 남전(南泉 1868-1936) 스님을 6년간 모시다가 범어사 강원으로 가서 6년간 간경에 매진해 이력(歷歷)을

의 품모를 갖춘 뒤 오대산 함암스님의 죽비(죽)에서 선풍(禪風)을 쏘이기 시작했다. 여러 안거를 성만했으며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간에 오직 한암 스님에게 받은 '마삼근' 화두를 타파하고자 일념을 놓지 않았다.

"중국 운문종의 동산수조선사에게 한 선객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동산선사는 '삼 서근이다(麻三斤)'라고 답했다. 그게 뭐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지. 삼 서근의 도리를 알려면 집착과 차별심을 먼저 버려야 해. 요즘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혼잡스러

경복 안동 용천당에서 1909년에 출생했다. 1923년에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6년 선학원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 범어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쳤다. 상원사 함암스님 회상에서 안거를 든 이후 금강산 마하연, 금정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 했다. 북곡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2회) 은해사주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의 많은 소임을 거쳤다. 행정이면 행정, 수행이면 수행, 포교면 포교 다방면에서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석주스님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린이 포교, 애중심, 역경사업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족적을 남겼으나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석주스님의 그림자는 자못 크다. 포교를 위한 전시회라면 수십 장씩 글씨를 써 주기도 하고 역경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노구를 일으켜 달려가 법문을 하는 석주스님의 면목이야말로 소름 돋아 길을 들고 난 뒤 저자겨리로 나와 무애자재 하는 그 경지가 아닐까.

“麻三斤” 도리 알려면 집착·차별심 버려야

운가. 왜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지 몰라. 나는 일찍부터 종이 정직하면 슬러 중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자신이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정직하면 무엇이 문제겠어. 요새는 신문을 볼 수가 없어. 재산 부정이 너무 많아. 다른 것보다 재산 부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 너무 탐욕하고 집착해서 그런 거야." 스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가 너무 무너져서 세상이 혼탁해 지고 있다고 염려했다. "서로 간에 못 믿는 것도 큰 문제야. 사

람들이 자기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정과 불신이 드러나는 거야."

스님의 글씨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글씨를 받았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한다. 근면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만족할 줄 알면 맨땅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고 죽음이 모르는 사람은 극력에 가서도 불안하게 살아."

구랍 31일 종정 해암 스님이 입적했다. 바깥일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초월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석주스님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

"죽음이란 본래 없어. 우주만물이 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인데 죽음이 어디 있나. 집착을 해서 윤회의 굴레를 벗지 못해 죽고 나고 하는 것이 본래 죽음이 아닌 것이야. 이 도리를 알아야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해. 불성(佛性)은 언제나 밝고 신령스럽게 우주에 가득차 있지만 그것을 볼 눈을 갖지 못했기에 나고 죽는 것에 그들리고 집착하는 것이야." 스님은 나고 죽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해동불교대학 (Hae Dong Buddhist College)

국제학부(國際學部) 신입 수강생 모집

해동불교대학은 15년 전인 1987년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도하는 불법 홍보를 위한 포교사 법사 삼장법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그동안 2천여 명의 전법 역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불교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 당시로서는 불교의 대중 교육을 선도해 가는 불교교육 기관이며 전법의 전초기지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해동불교대학은 그동안 세계불교계와의 인맥과 문화교류를 통한 노후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데 첨병역할을 할 세계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국제학부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제학부 (International Department)

- 불교철학전공 (Buddhist Philosophy)
세계불교문화전공 (World Buddhist Culture)
세계불교역사전공 (World Buddhist History)
불교영어과 (Buddhist English)
연령제한 (단, 30세 이상 60세 이하)
불교대학 수료자, 강원 수료자
일반대학 수료자

세계불교지도자과정 (World Buddhist Leadership Course)

- 국제 법사 삼장법사 승정과정
(國際 法師 三藏 法師 僧正 課程) 氣功師, 冥想禪師, Yoga Master
30세 이상 60세 이하
불교대학 또는 강원 수료자에 한함

- 애의 사찰이나 단체에서 수행체험 연수 유학을 원하는 분
●외국대학 학위과정(통신) - B.A. 과정(편입가능) M.A. 과정 (BA학위 소지자) Dr. 과정 (MA학위 소지자)
●꼭 관심 있으신 분은 자기신분과 전학을 밝히고 상담을 요망합니다.
●모집기간 : 2002년 1월 15일 ~ 2월 25일

해동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전화 02)3672-5042 팩스 02)3672-5043

후원단체

ABCP (아시아불교평화회의) HBDA (해동불교법사회) KBOM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SBN (The Seoul Buddhist News) 해외자매대학 및 단체 인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일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Year (1년, 2년) and Course (교과목).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Philosophy, Buddhist History, and Buddhist English, along with faculty names.

3.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7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exam dates and locations.

4. 입학일시 2002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림각(조계사) 02)733-0333 · 부산 : 불서보문사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점 064)749-4455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